

광주국제영화제 올 예산 지원 없다

광주시, 정산서류 미제출로 3억5000만원 중단 극심한 내부갈등 ... 작년 지원액 3억도 회수 방침

극심한 내부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올해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는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가 지난해 시에서 받아 집행한 보조금 집행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올해 책정된 보조금 3억5000만원을 지원할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 5월 조직위 측에 6월 24일까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난해 교부했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공문도 함께 보냈다.

조직위는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광주

시는 정산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집행된 내역이 다르다며 지난 10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고, 조직위는 여전히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광주시는 8월 중순까지 조직위가 정산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작년에 지원한 예산 3억원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는 정모 이사장이 전횡을 문제 삼아 염모 상임이사를 해촉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으며 급기야 영화제를 무기한 연기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직위가 내부갈등을 이유로 정산서류 제출을 미루고 있어 현재로는 올해 예산도 지원할 수 없다”며 “조직위가 다시 정비해서 준비를 한다면 예산 집행 계획 등을 검토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맞물려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광주국제영화제가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현 조직위원회 해체와 함께 완벽한 ‘새남 짜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지역 영화인들과 문화예술계에서는 일정상 올해 행사를 열지 못하더라도 영화제를 운영할 제대로 된 조직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행사를 치르는 데 급급한 ‘임기응변식

대응’은 향후 영화제 발전과 지역 영화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광주독립영화협회 등 지역 영화인들의 모임인 ‘광주국제영화제 문제 해결과 지역 영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 모난 테이블’은 28일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파행을 일삼은 (사)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말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영화인들은 또 오랫동안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조직위원회 해체와 새로운 운영주체 구성 등을 해결하지 않고 영화제 개최에 급급해 행사를 진행하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 청년 고용률 장흥 높고 무안 낮다

고령층 고용률 곡성 1위 호남통계청, 취업자 현황

전남 22개 시군 중 청년층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흥군과 신안군으로 조사됐다.

고령층 고용률은 곡성군과 신안군이 가장 높았다.

호남지방통계청이 26일 내놓은 2015년 하반기(10월) 전남 시군별 취업자 현황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장흥군으로 48.7%였다. 다음은 신안 46.8%, 해남 41.5%, 완도 40.9% 순이다.

청년층 고용률이 30~40%대인 곳은 여수(37.7%), 진도(37.5%) 구례(36.4%), 영암(35.5%) 함평(34.8%) 고흥(32.5%) 강진(31.6%), 영광(31%) 목포(30.6%) 순천(30.6%) 순

이다.

이밖에 담양 29.6%, 나주 28.5%, 광양 27.8%, 장성 26.7%, 곡성 25.4%, 화순 25.2%, 보성 22.8%, 무안 22.6%를 기록했다.

55세 이상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곡성군으로 74.1%였으며 신안 73%, 고흥 71.5%, 해남 70.7% 순이다.

다음으로 강진(68.8%) 진도(67.9%) 무안(67.7%) 함평(67.5%) 보성(66.8%) 장성(66%) 구례(65.8%) 완도(65.6%) 담양(65.1%) 순이다.

이 밖에 영광 64.9%, 나주 62.7%, 영암 61.5%, 장흥 61.4%, 화순 58.6%, 광양 53.3%, 순천 53.2%, 여수 45.7%, 목포 44.8%를 기록했다.

고령층 고용률은 미취업 노인들이 많은 시 단위 지역들이 낮은 편에 속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日 장애인 시설 흉기 테러 15명 사망 26일 새벽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사가미하라(相模原)에 있는 장애인 시설 ‘쓰구이(津久井)아마유리엔’에 20대 남자가 침입해 수용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최소 15명이 숨지고 45명이 부상했다.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자는 이날 경찰서에 출두해 “내가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사건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과 경찰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

/연학뉴스

野, 광주·전남서 국비지원 현안 논의

더민주 다음달 2일, 국민의당 4일 예산정책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지도부와 여결위원회가 광주·전남을 잇따라 방문해 국비지원 사업 등 현안을 논의한다.

2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더민주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우상호 원내대표, 박영선 참총음·지방정부위원장, 김현미 예결위원장과 박해자 광주시장 위원장, 최진·이병훈·양항자·이형석·이용빈 등 지역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운영현황 광주시장 등 시 간부들로부터 정부예산 사업과 현안 관련 보고를 듣고 지원책 등을 논의한다.

중앙당 인사들은 오후 2시 전남도청으로 옮겨 이날 전남지사 등 도 간부, 더민주 지역 위원장들과 함께 또 현안과 관련해 토론한다.

국민의당도 이를 뒤인 4일 오후 1시 30분 광주시청에서 광주시, 시교육청과 함께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김동철 간사를 비롯해 장병완·이용주·김성식·김

중화·김광수 의원 등 예결위원들이 참석한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전남도에서도 협의회를 열기로 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5일에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예산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광주시는 당시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등 국비 확보 요청에 중점을 뒀다.

이밖에도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에서도 반영되지 않은 2019 세계 수명연수권대회 국비 지원을 비롯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내면세점 유치, 광주 공공항 이전 등 국고지원 요청사업 등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조선 등 주력산업 고용안정,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 노선조기 확정,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편입, 신안경찰서 신설 등 지역 현안과 관련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수 필요 D등급 저수지 전남 103곳 ‘최다’

정인화 국회의원 ... 전국 273곳

전국에서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가운데 즉시 보강·보수가 필요한 안전등급 D등급을 받은 곳이 273곳에 달했다.

이 중 전남 지역 저수는 103곳으로 전국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26일 국민의당 정인화(광양·곡성·구례)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 3천379곳 가운데 8%에 해당하는 273곳이 안전등급 D등급을 받았다.

안전등급 A·B등급은 양호한 상태, C등급은 안전에 문제가 있어 예의주시하는

상태, D등급은 안전에 이상이 있고 즉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등급은 즉시 폐기해야 하는 상태를 뜻한다.

전체 저수지 3천379곳 가운데 A등급 431곳(12.7%), B등급 1천44곳(30.8%), C등급 1천616곳(47.8%), D등급 273곳(8%) 등이다.

지역별로 보면 273곳의 D등급 저수지 중 전남이 전체의 38%에 해당하는 103곳을 차지했다. 이어 경남 48곳(17.5%), 경북 48곳(17.5%), 전북 30곳(10.9%), 광주 17곳(6.2%) 순이다.

정 의원은 이들 시설에 대한 재해예방시설 개보수(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016년도 예산에 5천400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도 안전 D등급 273곳의 저수지를 대상으로 보수·보강하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 246억원이 추가로 편성됐다.

정 의원은 “농도인 전남의 많은 저수지는 대부분 노후화돼 붕괴 시 하류에 집중된 농가 등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돼 안전관리가 시급하다”며 “추경 예산에 반영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재해예방사업으로 낙후지역인 전남을 중심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광주시, 오늘 용역 보고회

광주시는 지역 청년의 실정에 맞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가 27일 오후 시청 1층 행복나눔실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와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은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청년들과 시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올해 2월부터 ‘청년도시 광주공동체’가 지향하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지역 청년에 맞는 청년정책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초중생 1120명 참가 영어 체험캠프 운영

전남도는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실용영어 활용 능력을 높이고, 도·농 간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도 교육청과 함께 ‘2016 전라남도 영어 체험캠프’를 운영한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전라남도 영어 체험캠프’에는 초·중학생 1120명이 참가한다.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중

학생, 8월 5일부터 10일까지 초등학교 560명을 대상으로 동진대 등 4개 캠프장에서 원어민과 24시간 합숙으로 진행된다. 특히 눈높이 집중수업을 위해 학생 14명을 1개 반으로 구성, 원어민 강사와 국내 교사가 공동으로 수업과 생활 지도를 전담해 단기간에 학습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유현석기자 chadol@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서 접수 2016. 8. 8(월)~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25(목)

▶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사랑과 감사의 62년 1954~2016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을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입학문의 ▶ 062)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즐겁게·모이자·房

교육일시 ▶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시설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투이!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